



사례1. 언어 영역 - 2007년 06월 모의평가 49번

 **평가원의 답변 내용**

○ 온건한 공평주의자는 상황이 같을 때에만 개인적 선호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문의 여섯째 줄에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나와 있듯이, 나이는 상황을 다르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이 있고 없음은 상황을 다르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순이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순이는 간병인이 없는 친할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사례2. 언어 영역-2008 수능 33번

 **평가원의 답변 내용**

○ 정답은 ‘① 가족’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은 ‘⑤ 우정’도 부등호의 배열이 ‘〈〉’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문의 넷째 문단에 “음절 초에는 ‘[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이라고 하여 음절 초에 ‘[ɰ]’이 올 수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국어 음절 말의 표기 ‘ㅇ’은 자음으로 받음이 [ɰ]이지만, 음절 초의 표기 ‘ㅇ’은 자음이 아니라 자리를 채우기 위한 기호일 뿐입니다. ‘우정’을 받음기호로 나타내면 [ɰudʒən]이 아니라 [udʒən]이 됩니다. 이것을 지문의 개구도에 따라 부등호로 표시하면 ‘〈〉’이 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평가원은 문제 해설을 할 때 구체적 위치를 들어가며 ‘지문의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줄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꼭 위의 두 가지 사례 뿐만 아니라 평가원은 대다수의 문제에서 위와 같은 문제 해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를 해설하는 근거가 지문에 있어야 70만 명이 깔끔하게 정답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수능 언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 수 있다.

language principle by 언어외길

2013 수능예측언어(상)

chapter 1

수능 언어 출제의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법칙으로
수능 언어를 종결한다

...

지문 선지 연결법이란?

지문-선지 연결법

- 핵심 1** 출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지문에 둘 수 밖에 없다.
- 핵심 2**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문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의 위치(몇 째 문단, 몇 째 줄)만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 핵심 3** 따라서 문제에 있는 선지를 판단할 때,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연결, 비교, 대응해보는 연습이 가장 효과적인 수능 언어 공부의 본질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단 한 가지 원리만 숙지하고 연습한다면 수능 언어 영역을 종결시킬 수 있다. 그 원리는 언어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인 ‘지문-선지 연결법’이다. ‘지문-선지 연결법’은 수능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가 되는 법칙이며 평가원이 이의 제기 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평가원 사이트 www.kice.r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문-선지 연결법’이란 문제에 있는 선지의 OX 판단을 할 경우, 선지가 맞을 때는 선지가 맞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보고 선지가 틀렸을 때는 선지가 틀린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서로 연결한 뒤, 지문과 정답 선지의 내용을 비교, 대응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문에 근거한 객관적인 정답 판단이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선지의 OX를 밝히고 그 선지가 맞는 근거와 틀린 근거를 지문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문-선지 연결법’을 설명하겠다. 예를 들어 2007 수능 57번 문제를 ‘지문-선지 연결법’으로 해결해보자.

example 지문-선지 연결법 예시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07 수능)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①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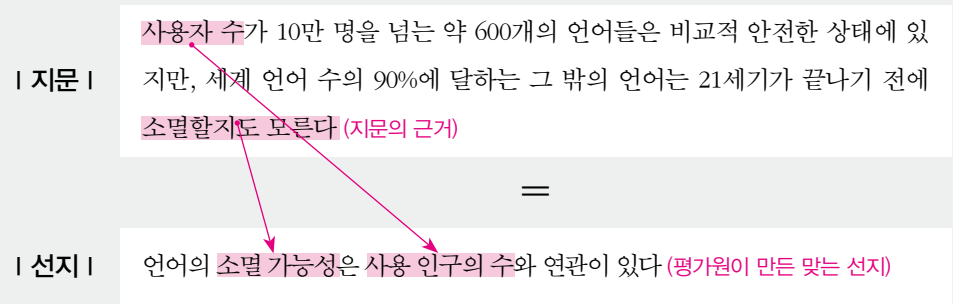
57. ①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07 수능 [57-60]번 지문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지문에서 사용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언어는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사용자 수가 10만 명이 안 되는 언어는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즉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해당 언어의 사용 인구의 수가 10만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와 연관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치하므로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같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지문-선지 연결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등호(=)의 의미는 왼쪽 항(지문)의 내용으로 오른쪽 항(선지)과 같은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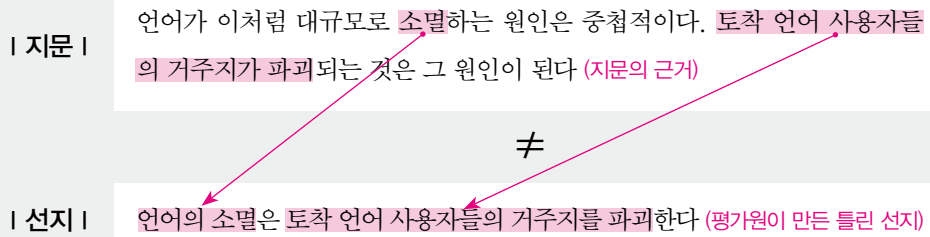
 평가원이 만든 틀린 선지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57. ②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07 수능 [57-60]번 지문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 되는 것은 그 원인이 된다.

지문에는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 파괴(원인)→언어의 소멸(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선지에는 ‘언어의 소멸(원인)→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 파괴(결과)’ 이렇게 인과 관계가 뒤바뀌어 있다. 이는 평가원이 오답을 만드는 패턴 중에 하나로, 선지에 인과 관계가 나왔을 때는 지문과 꼭 비교해 보도록 하자. ‘지문-선지 연결법’에 있는 등호(≠)의 의미는 왼쪽 항(지문)의 내용으로 오른쪽 항(선지)과 같은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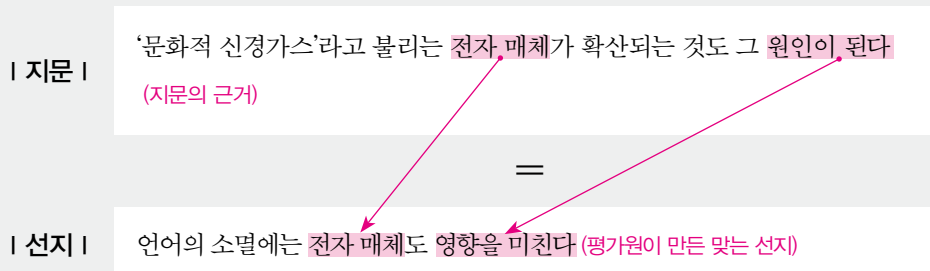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③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57. ③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07 수능 [57-60]번 지문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위의 지문 내용에서 전자 매체의 확산도 언어 소멸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은 일치한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④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57. ④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07 수능 [57-60]번 지문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위의 지문 내용에서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에 도덕적 문제가 개입됨을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은 일치한다.

| 지문 |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문의 근거)

=

| 선지 |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⑤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57. ⑤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07 수능 [57-60]번 지문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위의 지문 내용에서 언어의 소멸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므로 문화의 손실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은 일치한다.

| 지문 |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지문의 근거)

=

| 선지 |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한눈에 보는 지문-선지 연결법

- ❖ 전 페이지의 지문-선지 연결법은 다음과 같이 화살표 연결을 통해 한 지문에 표시할 수 있다.
- ❖ 왼쪽 지문에서 밑줄 친 내용들은 내용 끝에 문제 번호와 선지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이 번호가 표시된 내용이 해당 번호의 선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p>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57.①</p> <p>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57.②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57.③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 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p> <p>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p>	<p>문이다. 57.④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p> <p>왜 우리는 위협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57.⑤</p> <p>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③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 매체도 영향을 미친다. ④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⑤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	---